

제21장 가금류 수급 동향과 전망

이형우*·심민희**·정세미***·서강철****

1 산란계

- 1.1.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동향
- 1.2.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전망

2 육계

- 2.1.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동향
- 2.2.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전망

3 오리

- 3.1.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동향
- 3.2.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lhw0906@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min2727@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vjdtpal55@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softvalue@krei.re.kr

종 합

□ 미리보는 2020년 가금류 수급 전망

○ 산란계

- 2020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종계 사육 마릿수가 줄어 전년보다 1.7% 감소한 7,007만 마리로 전망된다. 계란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보다 1.3% 적은 65만 1천 톤으로 예상된다.
- 2020년 계란 산지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4.9% 상승한 1,018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1인당 계란 소비가능량도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0.2kg 적은 12.6kg으로 전망된다.

○ 육계

- 2020년 육계 사육 마릿수는 육용 종계 입식이 증가하여 2019년(9,811만 마리)보다 2.4% 많은 1억 43만 마리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가 늘어 2020년 도계 마릿수는 2019년에(10억 6천만 마리) 비해 2.8% 증가한 10억 9천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20년 생계유통가격은 도계 마릿수가 늘어 2019년(1,259원)보다 낮은 kg당 1,191원으로 예상된다.
- 2020년 닭고기 수입량은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로 국제 가격이 상승하여 2019년(17만 8천 톤)보다 감소한 17만 1천 톤으로 전망된다.

○ 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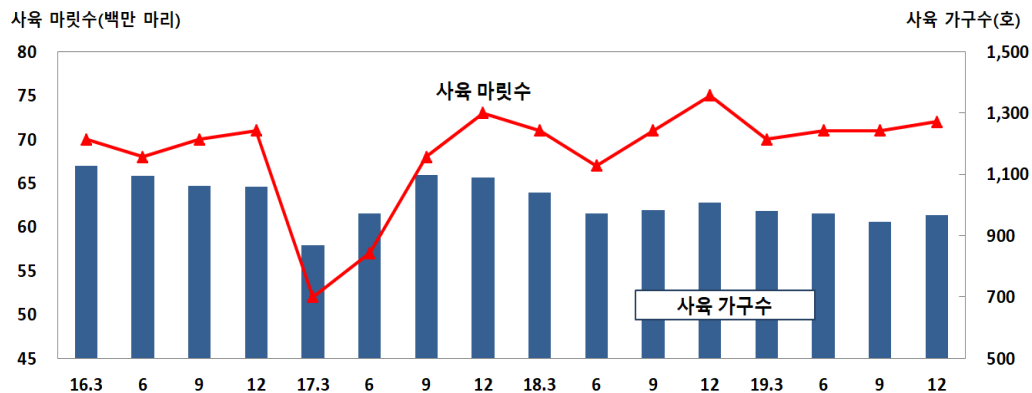
- 2020년 오리 사육 마릿수는 종오리가 많아 2019년보다 12.0%증가한 1,016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20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오리 사육마릿수가 늘어 2019년보다 9.9% 증가한 12만 8,446톤으로 예상된다.
- 2020년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9년보다 4.6% 하락한 4,939원(생체 3.5kg)으로 전망된다.

1.1.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동향

1.1.1. 산란계 사육동향

- 2019년 6개월령 이상 마릿수는 2018년 산란 종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병아리 입식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이 늘어 전년보다 2.4% 증가한 5,416만 마리였다. 평균 산란계 사육 마릿수도 6개월령 이상 마릿수가 늘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7,128만 마리였다.
- 그러나 2019년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산란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감소와 계란 가격 약세 지속으로 하반기부터 입식이 감소하여 2018년보다 5.4% 감소한 4,480만 마리였다.
- 2019년 산란계 사육 가구수는 965가구로 2018년(1,001가구)보다 3.6% 감소하였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2018년(7만 1천 마리)보다 4.0% 증가한 7만 4천 마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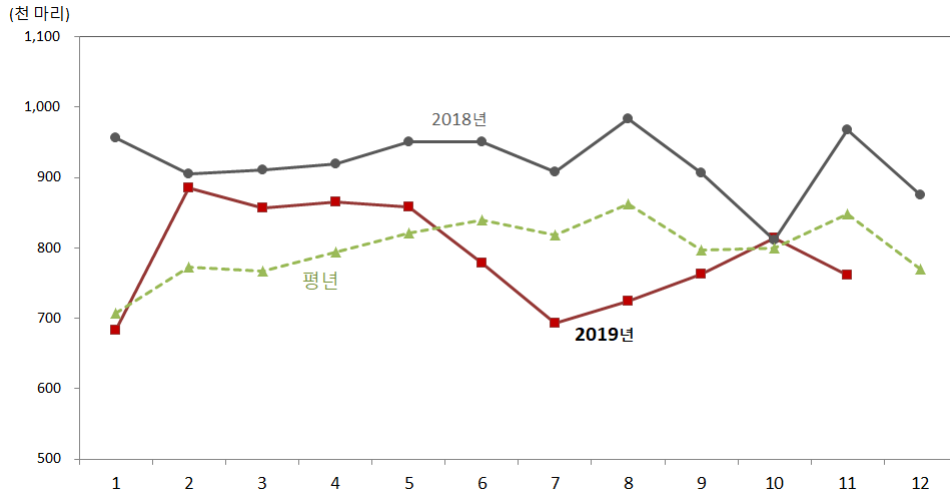
그림 21-1. 산란계 사육 마릿수 및 사육 가구수



자료: 통계청

- 2019년 평균 산란 종계 사육 마릿수는 약 79만 마리 내외로 추정되며, 전년보다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산란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50만 마리로 전년보다 14.4%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평년보다는 10.1%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종계 사육 마릿수는 2018년이 가장 많았으며, 2019년은 계란 가격 약세에 따른 산란 종계 도태 증가와 종계 입식 감소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 2019년 산란 종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 대비 12.8% 감소한 58만 마리로 추정된다. 산란 종계 사육 마릿수 감소에 따라 2019년 하반기 병아리 입식은 전년 동기 대비 12.0% 감소하였다.

그림 21-2. 산란 종계 사육 마릿수 추이



자료: 대한양계협회

1.1.2. 계란 수급 동향

- 2019년 계란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증가로 2018년보다 1.9% 많은 66만 톤이었다. 1인당 소비가능량은 계란 생산량이 늘어 2018년보다 1.5% 증가한 12.8kg이었다.

【표 21-1】 계란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p)
국내생산	604.4	657.4	657.6	700.7	577.1	646.9	658.9
수입	2.5	2.6	2.1	2.3	9.4	3.4	3.2
1인당 소비가능량(kg)	12.0	13.0	12.9	13.7	11.4	12.6	12.8

주: 2019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19년 계란 가공품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지만, 평년보다는 많은 3,772톤이었다. 그러나 계란 가공품 수입량이 국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며, HPAI 발생으로 계란 생산량이 부족했던 2017년을 제외하고 신선란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표 21-2】 계란 가공품 수입통관 실적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수입	금액(천\$)	14,555	12,778	13,680	38,005	19,836	17,937
	수입량(톤)	2,251	1,590	1,809	13,825	3,929	3,772
조란	금액(천\$)	2,792	2,744	2,864	18,059	6,381	5,294
	수입량(톤)	313	350	407	7,802	994	973
난백	금액(천\$)	7,940	8,321	8,807	10,360	7,043	6,986
	수입량(톤)	660	662	865	3,666	1,156	1,247
난황	금액(천\$)	3,824	1,714	2,009	9,586	6,412	5,656
	수입량(톤)	1,278	577	537	2,358	1,779	1,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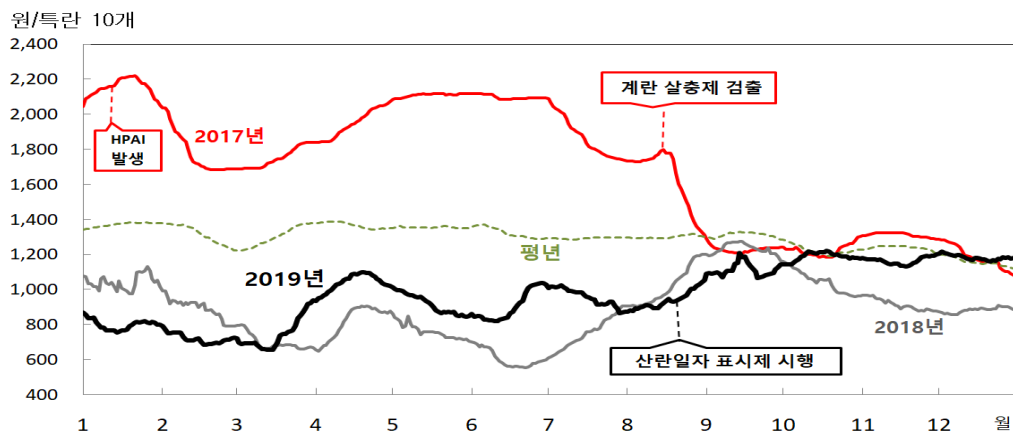
주: 계란 수급표에서 제시한 수입량은 조란과 난백, 난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농식품수출정보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자료: aT, 농식품수출정보

1.1.3. 계란 가격 동향

- 2019년 계란 산지가격은 8월 하순부터 상승하면서 전년보다 9.2% 높은 970원(특란 10개)이었다. 상반기 가격은 2018년부터 지속된 공급 과잉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9월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하였다.

- 부활절이 있는 4월을 제외한 1~8월까지 평균 산지가격은 1,000원 이하(특란 10개)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산란 노계 도태, 추석 수요, 산란일자 표시제 본격 시행(8월 23일)으로 8월 말 부터는 가격이 상승하였다.
- 2019년의 경우,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사태(2017년 8월) 이후 계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산란일자 표시제, 식용란선별포장업 유통 의무화 등)가 도입 및 시행되었다. 그 중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고 부담으로 농가는 산란 노계 도태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계란 가격은 시행 전보다 상승하였다.
- 추석 이후에는 소모성 질병 피해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사육 마릿수 대비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생산성 저하로 추석이 끝난 10~12월 계란 가격은 전년보다는 높았으나, 여전히 평년보다는 낮았다.

그림 21-3. 계란 산지가격 동향



주 1) 농협중앙회의 가격 조사 중단으로 2018~19년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임.

2) 평년은 2014~18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5일 이동평균가격)

-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전/후 계란 산지가격 변화를 추정한 결과, 추석 성수기 가격 변화와 생산량 변화를 제거한 산란일자 시행으로 인한 계란 가격 변화는 4.5%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3] 산란일자 시행(8월 23일) 전/후 계란 산지가격 요인별 등락 기여도 추정

산란일자 시행 전/후 가격 변화율 (A)	추석 성수기 전/후 (B)	생산량 변화 (C)	산란일자 시행으로 인한 가격 변화 (A-B-C)
19.1% 상승	5.3% 상승	9.3% 상승 (생산량 3.0% 감소)	4.5% 상승

주 1) 추석 성수기 전/후 가격 등락은 평년 기준을 적용함.

2) 생산량 변화는 사육 마릿수와 생산성 변화를 함께 고려하였으며, 가격 신축성 계수는 -3.13을 적용함.

1.1.4. 계란 소비 패턴

- 2019년 12월 농업관측본부 소비자 조사결과¹⁾, 2019년 가정 내 계란 소비를 늘렸다는 응답이 줄였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계란 소비를 늘렸다는 응답이 48.3%였으며, 줄였다는 응답은 6.6%로 조사되었다. 계란 소비를 늘린 이유는 '손쉽게 구입하고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60.4%),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32.3%),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5.1%) 순으로 조사되었다.
 - 2017년 HPAI와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파동 등으로 인한 식품 안전성 문제로 계란 구매가 감소하였으나, 2019년은 계란 가격 약세 등의 요인으로 계란 구매량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가정 내 계란 소비를 2019년보다 늘리겠다는 응답이 줄이겠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계란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37.1%로 줄이겠다는 응답(3.3%)보다 많았으나, 과반수 이상(59.6%)의 응답자들은 계란 소비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계란 소비를 늘리려는 이유는 '손쉽게 구입하고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54.9%),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38.2%) 순으로 조사되었다.
 - 2019년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심리가 완화된 것으로 보여 2020년 계란 소비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2019년 12월 27~29일(3일간)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63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 21-4] 소비자의 계란 구매량 및 구매의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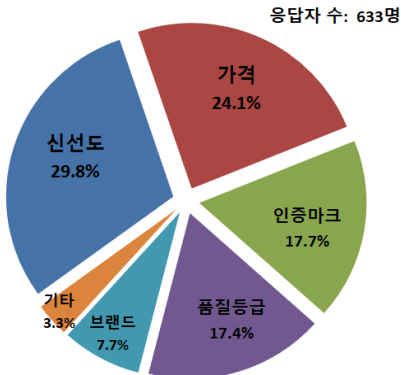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9년 구매량 변화	2020년 구매(의향) 변화
전년 대비 증가	306(48.3)	235(37.1)
변동 없음	285(45.1)	377(59.6)
전년 대비 감소	42(6.6)	21(3.3)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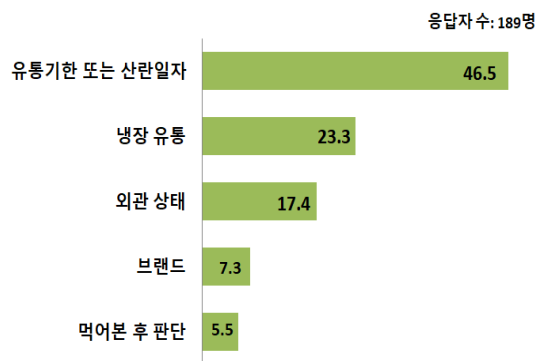
- 소비자들은 계란 구매시 신선도(29.8%), 가격(24.1%), 인증마크(17.7%), 품질등급(17.4%)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선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선도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또는 산란일자'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 유통'이 23.6%, '계란의 외관 상태'가 17.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 계란 구매시 고려사항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그림 21-5. 계란 신선도 판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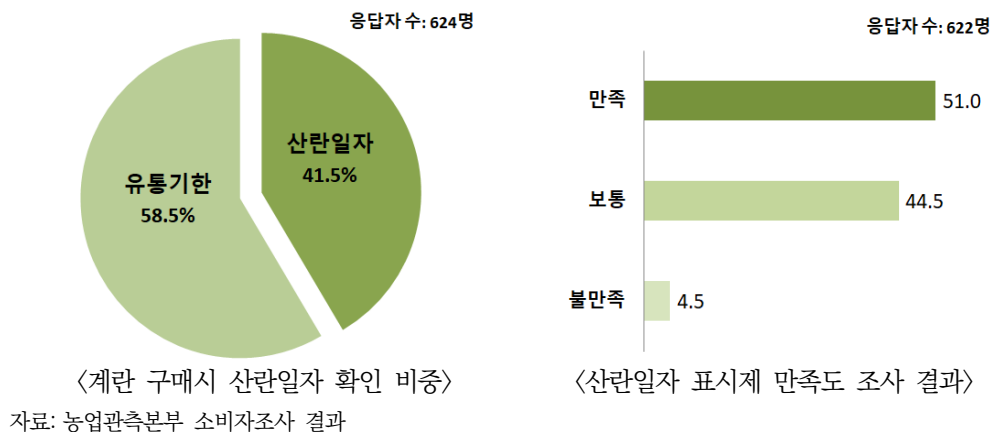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소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증마크는 무항생제가 3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HACCP(23.4%), 유기농(18.4%), 동물복지(15.4%), LOHAS(4.5%) 순이었다.
 - 인증마크 계란의 실제 판매가격은 유기농, 동물복지, 무항생제, HACCP 순이나 소비자들의 인증마크에 대한 평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살

충제 성분 검출 계란 파동을 겪은 후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안전성 관련 인증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계란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하였다.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는 2019년 6개월 제도기간(2.23일~8.23일)을 거쳐 8월 23일에 본격 시행되었으며, 현재(2020년 1월 기준) 유통되는 모든 계란에는 난각에 산란일자가 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
 - 산란일자 표시 시행으로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5자리), 사육환경(1자리)의 계란 생산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이후 계란 구매시 소비자들의 산란일자 확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한다’는 응답이 70.1%로 ‘확인하지 않는다(29.9%)’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 2019년 10월 소비자 조사 결과(확인한다, 60.5%) 대비 산란일자 확인 응답자 비중이 증가한 것은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로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이후, 계란 구매시 산란일자와 유통기한 중 어떤 것을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산란일자(41.5%)보다 유통기한(58.5%)을 더 많이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소비자의 계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유통기한(56.9%)이 산란일자(43.1%)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소비자들의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1.0%)이었으며, ‘불만족’은 4.5%에 불과하였다.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산란일자 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6. 계란 구매시 산란일자 확인 비중 및 산란일자 표시제 만족도



1.2. 수급 전망

1.2.1. 2020년 전망

- 2020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산란 종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병아리 입식이 줄어 2019년 대비 1.7% 감소한 7,007만 마리로 전망된다.
 - 종계 입식 마릿수를 바탕으로 산란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추정한 결과, 2020년 산란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전년보다 약 2.0% 내외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산란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 추정

	3월	6월	9월	12월
2020년	101.0	99.3	104.1	103.8
2019년	100.0	103.3	110.2	101.7
전년 대비(%)	1.0	-4.0	-6.2	2.0

주: 2020년 종계 입식은 평년 수준으로 가정하였으며, 2019년 3월(100)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 2020년 계란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가 줄어 2019년 대비 1.3% 감소한 65만 1천 톤으로 추정된다.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은 생산량 감소와 수요 증가로 2019년 대비 4.9% 상승한 1,018원으로 전망된다. 1인당 계란 소비가능량은 계란 생산량 감소로 2019년보다 0.2kg 감소한 12.6kg으로 예상된다.

1.2.2. 중장기 전망

- 2020년 이후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7,259만 마리, 2029년 7,581만 마리로 전망된다.
- 계란 생산량은 2024년 67만 3천 톤, 2029년 70만 3천 톤으로 예상되며, 1인당 계란 소비가능량은 2024년 12.9kg, 2029년 13.3kg으로 전망된다. 산지가격은 2024년 1,164원, 2029년 1,331원으로 전망된다.
- 2025년에는 산란계 사육밀도가 조정($0.05\text{m}^2/\text{마리} \rightarrow 0.075\text{m}^2/\text{마리}$)되어 시행 2년 전 부터는 사육 마릿수 증가 추세가 둔화 혹은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란 가격 상승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6】 계란 수급 및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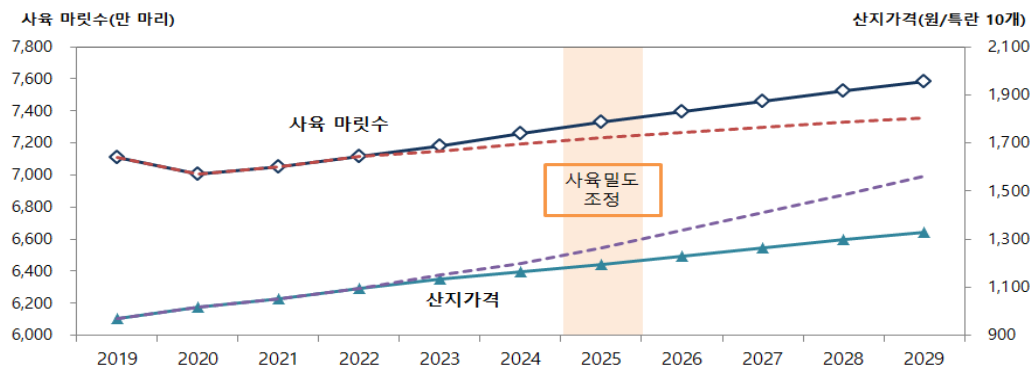
구 분	단위	2019	전망		
			2020	2024	2029
사육 마릿수	만 마리	7,128	7,007	7,259	7,581
계란 생산량	천 톤	658.9	651.0	672.5	703.0
1인당 소비가능량	kg	12.8	12.6	12.9	13.3
계란 산지가격	원/특란 10개	970	1,018	1,164	1,331

주 1) 사육 마릿수는 분기별 평균치임.

2) 2019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9)

그림 21-7.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산지가격 전망



주: 실선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 전망치이며, 실선은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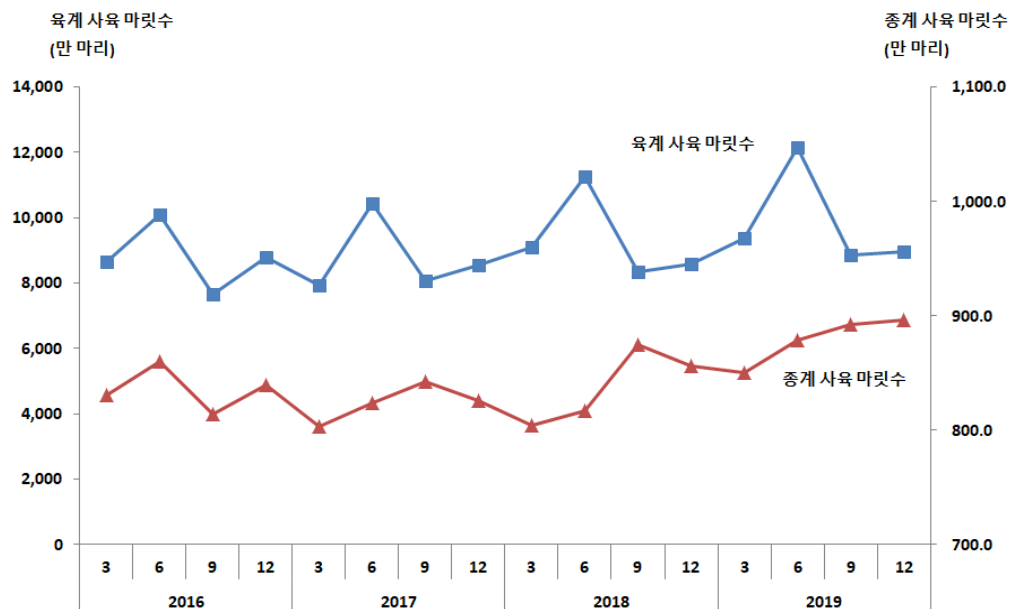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9)

2.1.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동향

2.1.1. 사육동향

- 2019년 평균 육용 종계(Parental Stock, PS) 사육 마릿수는 계열업체 도계시설 확대 등으로 입식이 늘어 2018년(832만 마리)보다 5.4% 증가한 877만 마리로 추정된다. 이 중 육성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380만 마리)보다 6.0% 증가한 403만 마리, 성계는 전년(453만 마리)보다 4.5% 증가한 474만 마리로 추정된다.
- 2019년 육용 종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2018년(728만 마리)보다 13.6% 증가한 826만 마리였다.

그림 21-8. 종계 및 육계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 2019년 상반기에는 종계 사육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계 산란율과 부화율 저하 등으로 생산성이 전년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하반기에는 노계 도태 증가와 신계군 산란 가담으로 폭염피해가 컸던 2018년보다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2019년 육용 종계 도태 마릿수는 2018년(580만 마리)보다 33.0% 증가한 771만 마리였다.
- 2019년 평균 육계 사육 마릿수는 종계 사육 증가로 병아리 공급이 증가하여 2018년(9,323만 마리)보다 5.2% 증가한 9,811만 마리였다.
 - 1~8차 HPAI 발생으로 사육 마릿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연평균 3.8% 증가하였다.
 -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규모화로 인해 2014년 5만 마리까지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사육 마릿수의 꾸준한 증가로 2019년에는 5만 7천 마리였다.
- 2019년 육계 생산성은 전년보다 향상되었다. 2019년 육계 생산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출하일령이 늘었으나 출하체중은 더 크게 증가하였고 육성률도 향상되어 계열사 평균 육계 생산지수는 2018년(314.8)보다 2.1% 높아진 321.3으로 나타났다.

【표 21-7】 육계 생산성

구 분	육성률(%)	출하일령	출하체중(kg)	사료요구율(kg)	생산지수
2019년	96.7	31.6	1.62	1.547	321.3
2018년	96.0	31.5	1.60	1.550	314.8
전년대비(%)	0.8	0.3	1.5	-0.2	2.1

주: 생산지수=(육성률×출하체중)/(출하일령×사료요구율)*100

자료: 한국육계협회

2.1.2. 닭고기 수급 동향

- 2019년 도계 마릿수는 육계 사육이 늘어 2018년보다 5.5% 증가한 10억 6천 만 마리,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은 63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 1~3월 도계 마릿수는 종계 노계 부화율 하락으로 병아리 생산량이 줄어 전년 동기간 대비 2.0% 감소한 2억 2,883만 마리였다. 육계는 전년보다 5.9% 감소한 반면, 삼계는 11.5% 증가하여 도계 감소폭은 줄어들었다.
- 4~12월 도계 마릿수는 지속적인 노계 도태와 신계 산란 가담으로 병아리 공급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7.8% 증가한 8억 3,116만 마리였다.
- 2019년 닭고기 수입량은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발생에 따른 국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산과 태국산 수입량 증가로 2018년보다 9.2% 증가한 17만 8천 톤이었다.
 - 2019년 브라질산 수입량은 2018년 하반기 이후 브라질내 수출업체가 증가하면서 2018년보다 7.8% 증가하였다.
 - 미국산 닭고기는 2018년 4월 냉동 닭고기의 동물용 의약품 성분 검출로 수입량이 크게 감소한 이후 매월 200톤 내외만 수입되고 있다.
- 2019년 닭고기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보다 수입량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 2018년보다 0.6%p 낮은 78.1%였으며, 닭고기 1인당 소비가능량은 2018년보다 0.6kg 늘어난 14.8kg이었다.
 - 닭고기 자급률은 2015년 83.2%를 기록한 이후 수입량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표 21-8】 닭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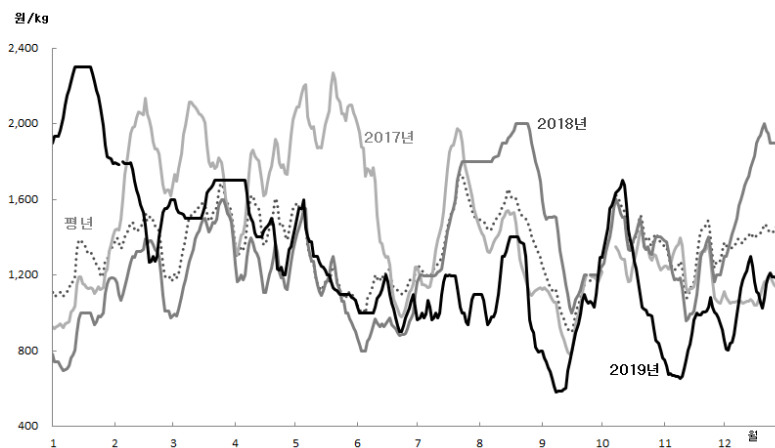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p)
공급	이월	2.9	5.9	7.6	5.8	8.3	6.6
	생산	527.9	585.3	599.5	565.0	603.0	636.1
	수입	141.4	118.6	128.3	131.9	162.8	177.8
	계	672.2	709.8	735.4	702.7	774.1	820.5
수요	소비	647.0	675.8	704.9	688.4	734.8	761.1
	수출	19.3	26.4	24.7	6.0	32.6	49.5
	재고	5.9	7.6	5.8	8.3	6.6	9.9
	계	672.2	709.8	735.4	702.7	774.1	820.5
자급률(%)		78.9	83.2	82.4	81.1	78.7	78.1
1인당 소비가능량(kg)		12.8	13.4	13.8	13.3	14.2	14.8

주: 2019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1.3. 가격 동향

- 2019년 평균 육용 병아리 가격은 병아리 생산 증가로 2018년(497원)보다 6.9% 낮은 463원이었다.
 - 4월까지의 병아리 생산 감소로 2018년보다 가격이 높았으나 5월 이후 병아리 공급이 늘어나면서 약세로 전환되었다.
- 2019년 평균 생계유통가격²⁾은 도계 마릿수 증가로 2018년(1,310원/kg)보다 3.9% 하락한 1,259원/kg이었다.
 - 1~2월 생계유통가격은 병아리 생산 감소로 육계 도계가 줄어 강세를 보였다. 3~4월에는 종계 생산성 회복으로 도계 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육계 생산성 저하로 대닭이 부족하여 2018년보다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 5월 이후 가격은 도계 마릿수가 크게 증가하고 생산성도 호전되면서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였다. 10월 상순 종계장 부도와 부화장 화재로 인한 병아리 수급 불균형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업체별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가격은 다시 약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21-9. 생계유통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4~18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5일 이동평균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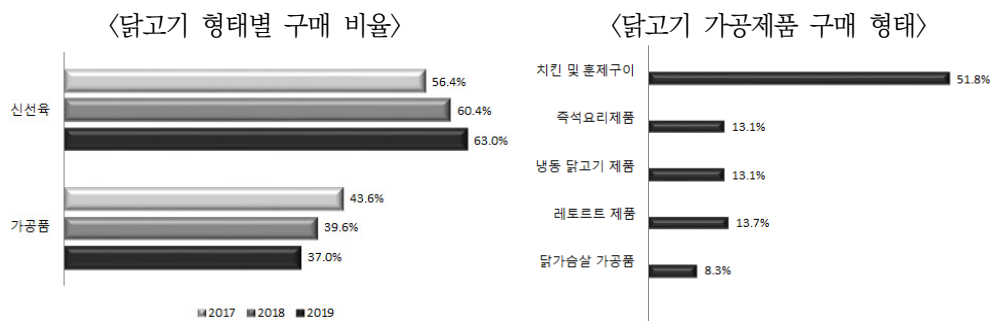
2)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육계산지가격은 생계유통가격과 위탁생계가격으로 구분됨. 생계유통가격(출하물량의 5.2%, 2018 축산물 유통실태 기준)은 계열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농가가 산닭 형태로 거래하는 가격이며, 위탁생계가격(출하물량의 94.8%)은 계열업체에 소속된 농가의 생계 납품 가격임.

2.1.4. 닭고기 소비 패턴

-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2019년 닭고기 소비를 늘렸다(37.5%)는 응답이 줄었다(10.2%)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닭고기 소비를 늘린 이유는 ‘배달 등 구입이 편해서’ (43.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맛있어서’ (29.2%), ‘저렴해서’ (10.9%), ‘건강을 생각해서’ (10.6%), ‘다이어트 때문’ (2.2%) 순으로 조사되었다.
- 2019년 소비자들의 신선육 구매 비율은 63.0%, 가공제품 구매 비율은 37.0%로 나타났다. 가정 내 간편 조리 기구 보급 확대와 밀키트³⁾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60.4%) 대비 신선육 구매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19년 여름철 보양식을 위한 닭고기 구매시 신선육 구매 비율 77.6%, 가공품 22.4%로 나타났다.
 - 맛별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름철 닭고기 소비 패턴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통업체의 여름철 백숙용 닭고기 판매비율은 2018년 84.7%에서 2019년 81.3%로 감소한 반면, 가정 간편식 삼계탕은 15.3%에서 18.7%로 증가하였다.
- 닭고기 가공제품 구입 형태는 치킨 및 훈제구이 (51.8%), 레토르트제품 (13.7%), 즉석요리제품 (13.1%), 냉동 닭고기 식품 (13.1%), 닭가슴살 가공품 (8.3%), 기타 (0.3%)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보다 치킨 및 훈제구이와 레토르트제품 구매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 밀키트(Meal Kit)는 손질된 식재료와 요리에 필요한 양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봉된 조리법대로 직접 요리하여 섭취하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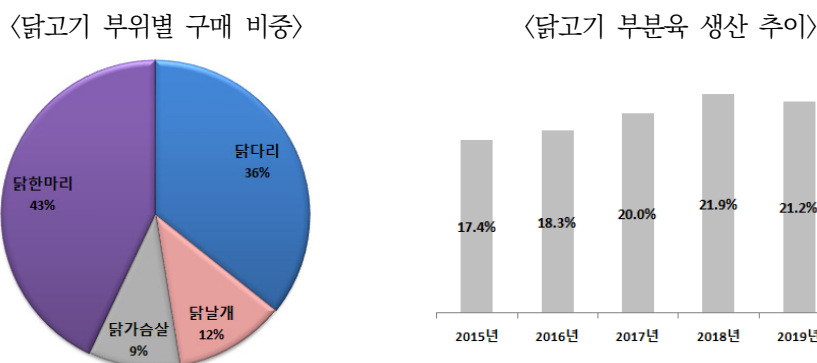
그림 21-10. 닭고기 구매 형태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소비자가 구매한 닭고기 부위별 비중은 닭 한 마리(42.9%), 닭다리(35.7%), 닭날개(11.7%), 닭가슴살(9.6%) 순으로 조사되었고, 전년 대비 닭 한 마리 비중이 증가하였다.
 - 2018년 부위별 구매 비중은 닭 한 마리(37.0%), 닭다리(36.9%), 닭날개(13.3%), 닭가슴살(12.2%), 기타부위(0.6%) 순이었다.
- 2019년에는 닭고기 부분육 생산 비율이 2018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계열업체 조사 결과 부분육 생산 비율은 2015년 17.4%에서 2018년 21.9%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21.2%로 감소하였다.
 - 닭 한 마리용 간편식 제품 생산 증가와 부분육 생산에 따른 닭가슴살 재고 증가로 2019년 부분육 생산 비율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11. 닭고기 부위별 소비 패턴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자료: 계열업체 조사 자료

- 소비자들은 닭고기를 선택할 때 신선도(22.3%)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가격(21.9%), 안전성(19.1%), 브랜드(18.4%), 원산지(18.4%) 순으로 나타났다.
 - 2018년 소비자의 닭고기 선택 기준 우선순위는 신선도(28.6%), 가격(19.3%), 안전성(18.6%), 브랜드(16.8%), 원산지(16.4%) 순이었다.
- 2020년 닭고기 소비 의향 조사 결과, 2019년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닭고기 소비를 늘리려는 이유로는 ‘타 육류에 비해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33.9%), ‘맛있기 때문에’ (24.5%), ‘건강을 생각해서’ (22.9%), ‘가격이 저렴해서’ (13.0%) 순으로 조사되었다.
 - 닭고기 소비를 줄이려는 이유로는 ‘육류 소비를 줄이려고’ (34.4%), ‘다른 육류 소비를 늘리려고’ (21.5%), ‘가격이 비싸서’ (16.1%), ‘닭고기 안전성 우려’ (12.9%) 순으로 조사되었다.
 - 대체 소비 등에 따른 소비 감소 영향은 있겠으나 구매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2020년 전반적인 닭고기 소비는 2019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 육계 사육 및 닭고기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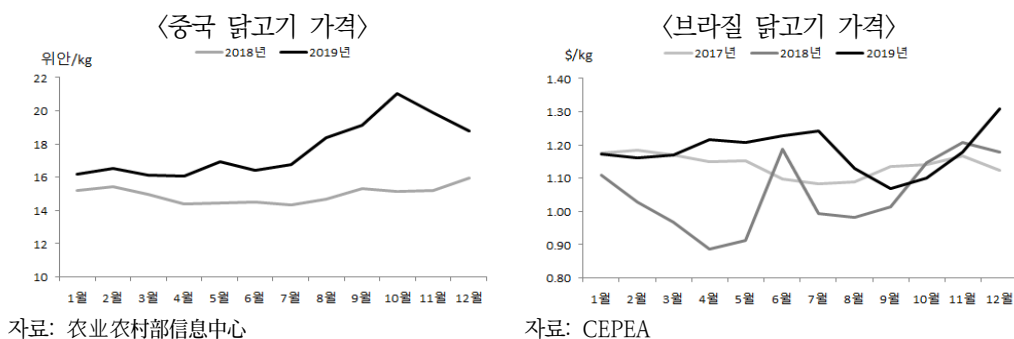
2.2.1. 닭고기 관련 여건 변화

- 2019년 중국내 닭고기 가격은 kg당 17.69위안으로 2018년(14.97위안)보다 18.2% 상승하였다. 중국 내 ASF 발생으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대체 단 백질 수요 증가로 닭고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 2019년 중국의 닭고기 수입량은 2018년(50만 톤) 보다 50.1% 증가한 75만 2천 톤이었으며, 수입 단가는 11.0% 상승한 kg당 2.51달러였다.
 - 수입 비중이 가장 큰 브라질산 수입량은 25.5% 증가하였으며, 아르헨티나산, 태 국산⁴⁾, 칠레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 브라질산과 아르헨티나산 수입단가는 각각 10.3%, 13.0% 상승하였다.

4) 2004년 태국 HPAI 발생 이후 중국에서 태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2018년 3월부터 수입 재개

- 2019년 브라질내 닭고기 가격은 kg당 1.18달러로 2018년(0.98달러) 대비 20.5% 상승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한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브라질내 닭고기 가격은 재고 증가로 2018년 9월까지 약세를 보였으나 중국 영향으로 10월 이후 상승 전환되었다.

그림 21-12. 중국과 브라질 닭고기 가격



- 2019년 국내 닭고기 수입단가도 국제 가격 상승으로 2018년(2.3달러)보다 8.8% 상승한 2.5달러였다.
- 수입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냉동 닭다리의 2019년 수입 단가는 전년 대비 8.7% 상승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브라질산이 5.9%, 미국산 8.6%, 태국산 3.3% 상승하였다.

2.2.2. 닭고기 교역 여건 전망

- 2020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2019년보다 3.9% 증가한 1억 350만 톤으로 돼지고기 생산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USDA).
- 미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2019년 대비 1.7% 증가한 2,017만 톤, 중국은 14.5% 증가한 1,580만 톤, 브라질은 2.5% 증가한 1,398만 톤으로 전망되고, EU는 1.1% 증가한 1,260만 톤으로 전망된다.
- 중국은 원종계(GPS)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중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육류 가격이 상승하여 닭고기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량은 중국의 단백질 공급원인 육류 수요 증가 영향과 경제 성장에 따른 국내 소비 증가로 2019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국가별 닭고기 수출량은 브라질이 2019년보다 4.9% 증가한 404만 톤, 미국은 1.9% 증가한 333만 톤, EU는 1.9% 증가한 161만 톤으로 전망된다. 주요 국들의 수출량 증가로 2020년 세계 닭고기 수출량은 2019년보다 4.4% 증가한 1,250만 톤으로 전망된다.
- USDA 전망치(Oct 10, 2019) 발표 이후 중국에서 미국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미국의 닭고기 수출량은 전망치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2020년 닭고기 수입량은 일본의 경우 110만 톤으로 2019년보다 0.9%, 멕시코는 87만 톤으로 2.4% 증가하지만, EU는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닭고기 수입량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영향으로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9】 주요국의 닭고기 수급 및 수출입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생산량			구분	소비량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미국	19,823	20,165	1.7	미국	16,598	16,912	1.9
중국	13,800	15,800	14.5	중국	13,980	16,110	15.2
브라질	13,635	13,975	2.5	EU	11,660	11,750	0.8
EU	12,460	12,600	1.1	브라질	9,789	9,938	1.5
기타	39,854	40,958	2.8	기타	45,483	46,568	2.4
계	99,572	103,498	3.9	계	97,510	101,278	3.9
구분	수출량			구분	수입량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브라질	3,850	4,040	4.9	일본	1,090	1,100	0.9
미국	3,262	3,325	1.9	멕시코	845	865	2.4
EU	1,580	1,610	1.9	EU	780	760	-2.6
태국	990	1,100	11.1	중국	625	750	20.0
기타	2,294	2,422	5.6	기타	6,570	6,806	3.6
계	11,976	12,497	4.4	계	9,910	10,281	3.7

주: 2019년은 추정치, 2020은 전망치임.

자료: USDA, FAS,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Oct. 2019)

- 2020년 브라질, 미국 등 주요국들의 닭고기 생산량과 수출량은 2019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USDA), 미국과 EU산 닭고기 관세도 추가 인하되는 등 국내 수입 닭고기 시장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육류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한 수입 가격 강세가 예상되어 2020년 닭고기 수입량은 2019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0년에는 수입 단가와 환율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수입 닭고기 도매원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브라질산 3,283원, 미국산 닭고기 도매원가는 kg당 3,417원, 덴마크산 2,622원으로 전망된다.

【표 21-10】 수입 닭고기 가격 동향과 전망

구분	2019		전망		
			2020	2024	2029
환율(원/US\$)	1,164		1,168	1,172	1,166
수입단가 (\$/kg)	브라질	2.01	2.16	2.20	2.31
	미 국	2.43	2.61	2.65	2.79
	덴마크	1.80	1.94	1.97	2.07
관세율 (%)	브라질	20.0	20.0	20.0	20.0
	미 국	4.0	2.0	0.0	0.0
	덴마크	7.0	6.0	0.0	0.0
도매원가 (원/kg)	브라질	3,042	3,283	3,346	3,501
	미 국	3,223	3,417	3,421	3,579
	덴마크	2,459	2,622	2,540	2,65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9)

- 2020년 이후 닭고기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내 도매원가는 2029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산과 덴마크산의 도매원가는 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2029년 kg당 각각 3,579원, 2,658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브라질산 닭고기는 관세유지 영향으로 미국산 및 덴마크산과의 가격 격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9년에 kg당 3,501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2.3.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 2019년 육용 원종계(Grand Parental Stock, GPS) 수입은 2018년(20만 9천 마리)보다 3.8% 감소한 20만 마리였으며, 주 수입국은 영국, 미국이었다. 사육 및 생산 규모 확대로 원종계는 2016년 이후 매년 20만 마리 이상 수입되고 있다.
- 2019년 육용 원종계 평균 사육 마릿수는 25만 마리로 2018년(25만 9천 마리)보다 3.2% 감소하였으며, 이 중 산란에 가담한 계군은 약 15만 5천 마리로 추정된다.

【표 21-11】 원종계 수입 현황(D-Line 기준)

단위: 천 마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9년	0	22.9	0	20.0	0	43.7	20.8	26.0	0	0	26.0	41.6	201
2018년	18.0	0	0	20.0	0	41.6	20.8	0	25.0	20.0	0	63.6	209
2017년	41.3	43.2	0	0	0	0	0	33.7	54.1	20.8	30.0	31.2	254

주: 원종계는 종계 부계 생산을 위한 A(수), B(암)라인, 종계 모계 생산을 위한 C(수), D(암) 라인을 수입
 자료: 대한양계협회

- (2020년 전망) 원종계 사육 마릿수 증가와 계열업체 도계라인 확충으로 2019년 종계 입식은 역대 최대인 826만 마리였다. 따라서 2020년 병아리 생산 및 육계 사육은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2019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육용종계 입식 마릿수를 고려한 2020년 상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는 2019년 동기간보다 12.5%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2018년 11월~2019년 3월 종계 생산성이 저하되었던 부분을 적용할 경우, 추정된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는 추가적으로 4~7%p 상승하여 병아리 생산 증가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표21-12] 병아리 생산 잠재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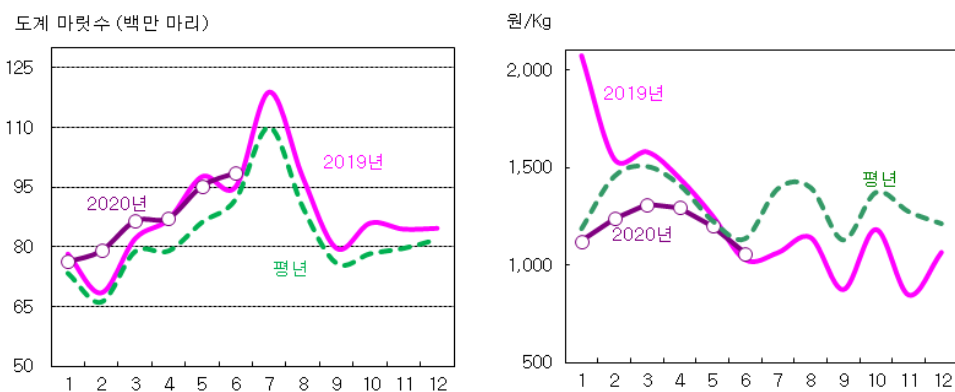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0년	108.3	110.1	112.7	116.4	122.0	120.6
2019년	100.0	99.0	98.3	99.0	107.8	109.5
증감률(%)	8.3	11.2	14.6	17.6	13.2	10.1

주: 잠재력 지수는 입식된 최근의 육용 종계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7개월 전 10개월 누적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2019년 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고, 도계 시설 확대 등 계열업체의 닭고기 생산 의향도 높아 2020년 상반기 도계 마릿수는 2019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계 마릿수가 늘어 2020년 상반기 닭고기 공급량은 2019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0년 상반기 도계 마릿수는 병아리 생산 증가로 육계 사육 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 동기간보다 2.9% 많은 5억 2,309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20년 상반기 생계유통가격은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전년 동기간(1,488원/kg)보다 낮은 1,200원/kg 내외로 전망된다.
 - 1분기 가격은 병아리 생산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2019년보다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과잉에 따른 장기적인 가격 약세가 전망된다.

그림 21-13. 2020년 상반기 도계 마릿수 및 생계유통가격 전망



자료: 농업관측본부 추정 및 전망치

- 하반기에도 육계 사육 마릿수가 늘어 2020년 도계 마릿수는 2019년보다 2.8% 증가한 10억 9천 만 마리, 국내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65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 종계 입식 증가가 예상되어 2020년 하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도 2019년 동기 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장기 전망) 육계 사육 마릿수는 2020년 1억 43만 마리에서 2029년 1억 909만 마리로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계 사육 마릿수는 원종계 사육 증가로 종계 공급이 안정되고 계열업체간 경쟁 과열로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20년 닭고기 수입량(통관 기준)은 수입 단가 상승으로 전년보다 3.9% 적은 17만 1천 톤으로 전망되나, 닭고기 관세 인하 등으로 수입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 닭고기 수입량은 18만 7천 톤, 2029년은 19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 2020년 닭고기 공급 과잉이 예상되어 생계유통가격은 2019년 대비 5.4% 하락한 생체 kg당 1,191원으로 전망되며, 2024년에는 1,333원, 2028년은 1,462원으로 전망된다.

【표 21-13】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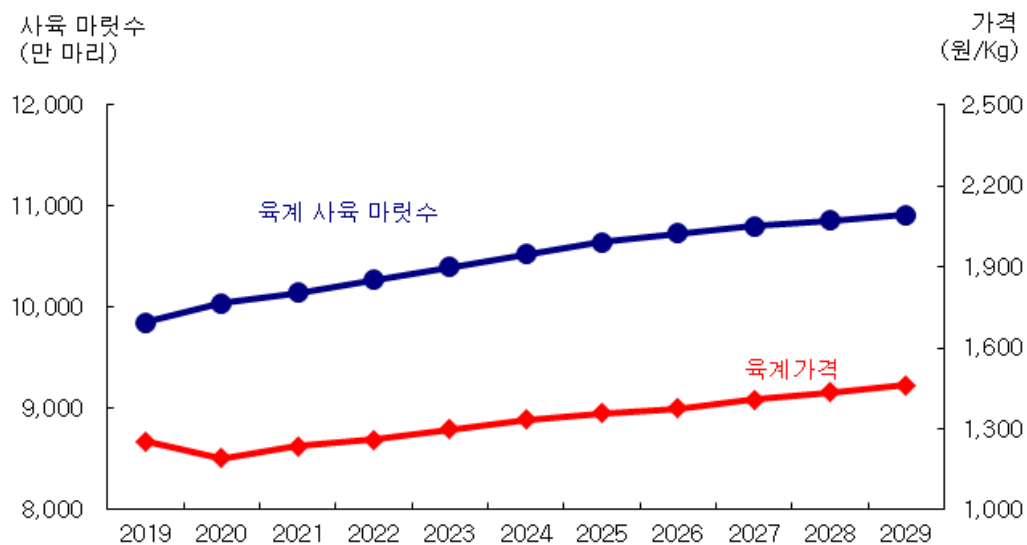
구 분	단위	2019	전망		
			2020	2024	2029
사육 마릿수	만 마리	9,811	10,043	10,526	10,909
생산	천 톤	636	655	688	718
수입	천 톤	178	171	187	197
1인당 소비가능량	kg	14.8	15.1	15.6	15.9
생계유통가격	원/생체kg	1,259	1,191	1,333	1,462

주 1) 1인당 소비가능량은 정육 기준임.

2) 생계유통가격은 명목가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9)

그림 21-14. 육계 사육 마릿수와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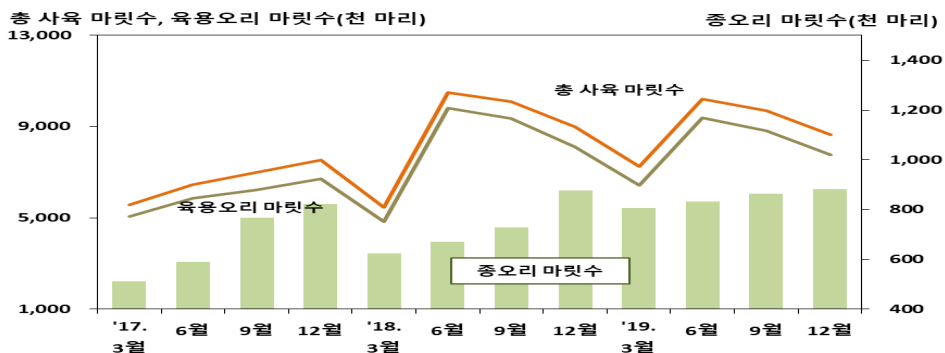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9)

3.1.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동향

3.1.1. 사육동향

- 2019년 평균 오리 사육 마릿수는 종오리 입식 증가로 2018년(876만 마리)보다 2.1% 늘어난 894만 7천 마리였다.
 - 2019년 종오리는 84만 6천 마리, 육용오리는 810만 2천 마리로 전년보다 각각 16.7%, 0.8% 증가하였다.
- 2019년 3월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724만 3천 마리로 사육제한 시행(2018년 11월~2019년 2월) 전인 2018년 9월(1,008만 6천 마리)보다 28.2% 감소하였다. 그러나 3월 이후 사육제한 해제로 사육 마릿수가 증가세로 전환되어 6월에는 938만 3천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 2019년 3월 오리 사육 가구수는 사육제한 실시로 449가구까지 줄었으나, 6월에는 606가구까지 증가하였다.
 - 2019년 평균 오리 사육 가구수는 533가구로 2018년보다 2.5% 증가하였으나, 가구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1만 6천 마리로 전년과 비슷하였다.

그림 21-15. 오리 사육 마릿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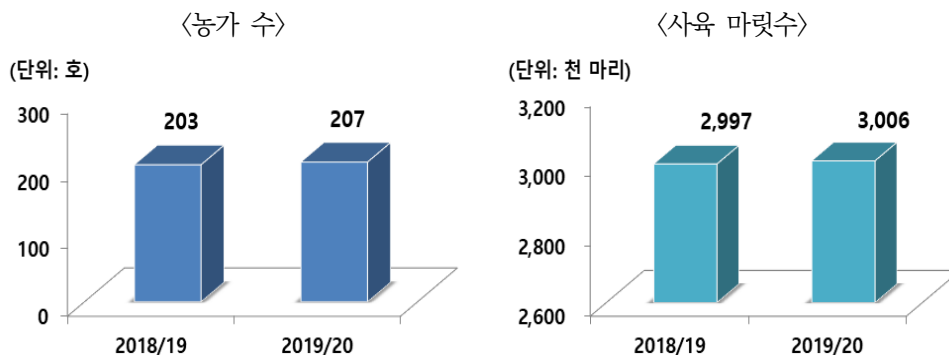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오리 사육제한이 공급에 미친 영향

- 오리 사육제한은 2017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 HP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8/19년 오리 사육제한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개월간 실시되었다.
- 정부는 2019/20년에도 전년과 같은 기간(2019.11~2020.2)에 오리 사육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21-16. 오리 사육제한 추진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18/19년 사육제한 시행 여부에 따른 월별 도압 마릿수 추정치와 실제치는 <표 21-11>과 같다.
 - 사육제한 시행으로 인한 2018년 12월~2019년 4월 도압 마릿수는 총 2,553만 9천 마리로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2,990만 9천 마리)보다 약 437만 마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1】 사육제한 시행 여부에 따른 도압 마릿수 추정치와 실제치

단위: 천 마리

도압 마릿수	2018년	2019년				합계
	12월	1월	2월	3월	4월	
추정치	6,602	6,503	5,221	5,846	5,737	29,909
실제치	5,997	5,549	4,178	4,558	5,257	25,539
증감률(%)	-9.2	-14.7	-20.0	-22.0	-8.4	-14.6

주: 월별 도압 마릿수는 산란 종오리의 주령별 산란율 등을 통해 추정된 월별 육용오리 병아리 입식 마릿수를 활용한 것임.

자료: 농업관측본부(추정치), 농림축산검역본부(실제치)

3.1.2. 오리고기 수급 동향

- 2019년 육용오리 입식 마릿수는 6,890만 마리로 2018년(6,789만 마리)보다 1.5% 증가하였으며, 총 도압 마릿수 또한 6,962만 마리로 2018년(6,748만 마리)보다 3.2% 증가하였다. 오리고기 생산량은 11만 6,891톤으로 2018년(11만 3,695톤)보다 약 3천 톤 증가하였다.
- 1인당 소비가능량도 오리고기 공급량 증가로 2018년보다 0.1kg 증가한 2.4kg이었다.

[표 21-14] 오리고기 수급 동향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p)
공급(톤)	생산	106,450	118,328	118,898	89,417	113,695	116,891
	수입	2,921	3,122	3,379	3,461	4,075	5,770
	계	109,371	121,450	122,277	92,878	117,770	122,661
1인당 소비가능량(kg)		2.2	2.4	2.4	1.8	2.3	2.4

주 1) 수입은 정육·지육, 열처리의 합임.

2) 2019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자료: 한국오리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1.3. 오리 산지가격 동향

- 2019년 오리 산지가격은 공급량(도압 마릿수 + 이월 냉동재고량) 증가로 2018년 (6,937원)보다 25.4% 하락한 생체 3.5kg당 5,177원이었다.
 - 3~4월 평균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 사육제한 대비로 2018년 하반기부터 도압 마릿수와 오리고기 냉동재고량이 늘어 전년보다 45.6% 하락한 5,700원이었다.
 - 7~8월 가격도 복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상황 개선으로 생산량이 늘어 전년보다 낮았다.

[표 21-15] 오리고기 냉동재고량 추이

단위: 천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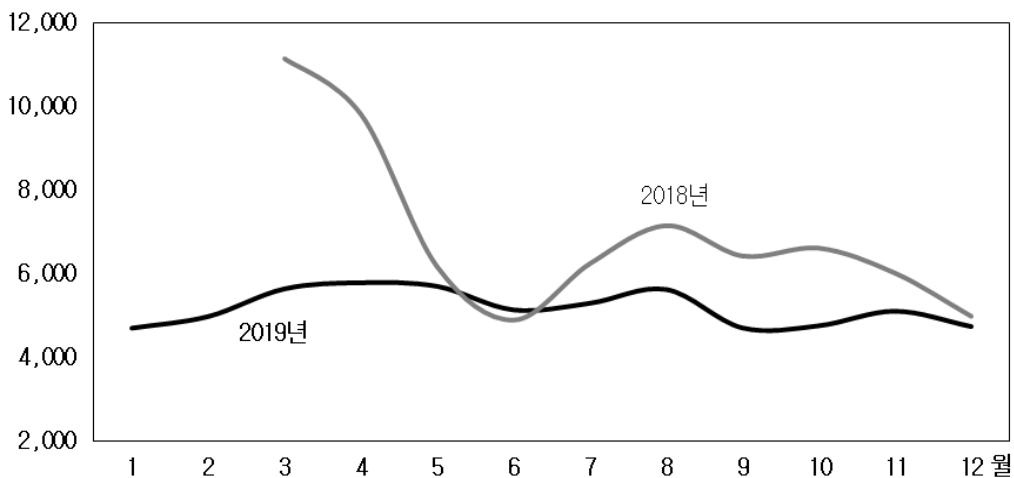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493	437	35	29	379	721	784	989	1,533	2,938	3,589	4,000
2019년	5,482	5,445	5,406	4,775	4,313	5,072	4,855	4,776	5,163	5,253	4,928	4,917

주: 냉동재고량 자료는 일부 계열업체의 자료가 빠진 상태로, 전체 물량의 70~80% 수준으로 추정됨. 재고량은 매월 마지막 주에 조사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한국오리협회

그림 21-17. 오리 산지가격 동향

생체가격(원/3.5kg)



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오리 산지가격(원/kg)을 발표하고 있으며, 위 가격은 오리 평균 생체증량인 3.5kg에 맞춰 환산한 것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3.1.4. 오리고기 소비 패턴

- 소비자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2019년에 오리고기를 소비하는 빈도는 ‘1~4회’, ‘5~8회’ 순으로 많았다. 특히, 오리고기를 1년 동안 전혀 먹지 않는 소비자도 상당수로 가정 내와 외식 소비에서 모두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6】 연간 오리고기 소비 빈도

단위: 명, (%)

구 분	가정 내 소비	외식(배달 포함) 소비
0회	80 (12.8)	79 (12.8)
1~4회	362 (58.1)	433 (70.1)
5~8회	114 (18.3)	79 (12.8)
9~12회	35 (5.6)	13 (2.1)
12회 이상	32 (5.1)	14 (2.3)
합계	623 (100.0)	618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가정 내에서 주로 먹는 오리고기 메뉴는 훈제오리(41.5%), 로스 등 오리구이(31.8%), 오리주물럭(14.8%) 순으로 나타났으나, 외식용 메뉴는 오리구이(30.8%), 훈제오리(28.3%), 오리주물럭(17.7%) 순으로 많았다. 2019년에 주로 먹는 오리고기 메뉴는 가정 내에서도 식당에서 전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21-17】 주로 먹는 오리고기 메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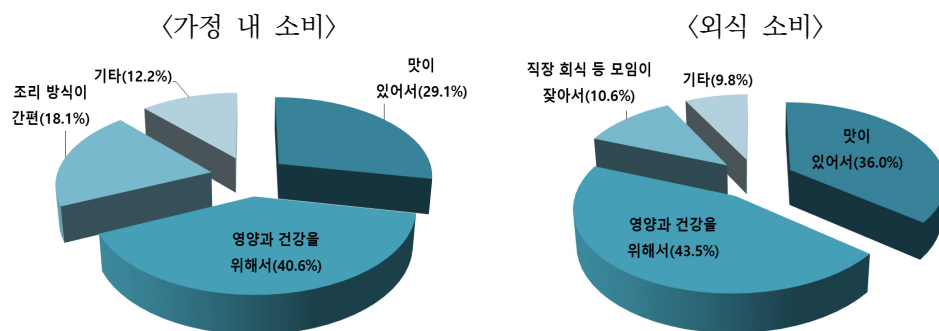
구 분	가정 내 소비	외식(배달 포함) 소비
훈제오리	41.5	28.3
오리구이(로스 등)	31.8	30.8
탕류(오리탕 등)	3.5	6.6
오리백숙	6.8	15.5
오리주물럭	14.8	17.7
기타	1.6	1.0
합계	100.0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소비자들이 오리고기를 먹는 주된 이유는 ‘영양과 건강을 위해’, ‘맛이 있어서’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들 다수는 오리고기를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가정 내에서는 조리 방식이 간편하여(18.1%), 외식으로는 직장 회식 등 모임이 잦아서(10.6%) 소비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그림 21-18. 오리고기 소비 이유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오리고기를 소비할 때 불편한 사항으로 가정 내에서는 ‘조리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관련 정보가 제한적(61.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편 외식 소비에서는 ‘다른 육류보다 메뉴가 제한적임(70.1%)’이라는 응답률이 전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표 21-18] 오리고기 소비 시 불편 사항

단위: 명, (%)

구 분	가정 내 소비		외식(배달 포함) 소비	
	2018	2019	2018	2019
판매되는 오리고기의 크기가 적당하지 않음(너무 크거나 작음)	68 (16.0)	102 (19.2)	31 (7.0)	79 (12.8)
조리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관련 정보가 제한적임	266 (62.6)	327 (61.5)	-	-
다른 육류에 비해 메뉴가 제한적임	-	-	179 (40.5)	433 (70.1)
오리가격이 다른 육류에 비해 비쌌	58 (13.6)	79 (14.8)	103 (23.3)	79 (12.8)
오리고기 구입이 어려움	18 (4.2)	24 (4.5)	-	-
오리고기 음식점이 주변에 많지 않음	-	-	125 (28.3)	13 (2.1)
기타	15 (3.5)	0 (0.0)	4 (0.9)	14 (2.3)
합계	425 (100.0)	532 (100.0)	442 (100.0)	618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오리고기 소비 의향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2020년에 오리고기 소비를 2019년보다 줄이겠다고 응답하였다. 예상 소비량은 2019년을 100.0으로 볼 때 2020년에는 98.2로 나타났다.
 - 오리고기 소비를 줄이려는 이유는 ‘조리 방식이 어려워서(26.6%)’, ‘오리고기 판매 마켓이나 음식점이 주변에 많지 않아서(18.3%)’, ‘가격이 비싸서(17.0%)’ 순으로 많았으며, ‘맛이 없어서(12.8%)’라는 이유도 많았다.
- 오리고기는 국내산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 육류와 달리 맛이 없어서 소비를 줄인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오리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뉴 개발과 조리법 등 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수급 전망

- 2020년 종오리 사육 마릿수는 93만 2천 마리로 2019년 84만 6천 마리보다 약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종오리 마릿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2019년 종오리 입식 마릿수가 전년보다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다.

[표 21-19] 종오리 입식 마릿수 추이

단위: 천 마리,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8년	10.5	14.7	16.8	23.0	12.6	12.6	42.5	43.4	44.7	70.0	39.1	37.8	367.7
2019년	29.9	27.8	43.2	54.6	55.4	51.7	60.5	41.4	50.8	46.9	23.1	13.1	498.5
평년	12.8	26.3	31.7	55.5	66.3	50.7	50.2	56.0	45.4	44.0	35.7	28.6	503.2
19/18	184.8	89.3	157.0	137.5	339.9	311.9	42.4	-4.5	13.5	-33.0	-41.0	-65.4	35.6
19/평년	134.1	5.9	36.1	-1.6	-16.4	2.1	20.4	-26.0	11.8	6.6	-35.4	-54.2	-0.9

자료: 한국오리협회

-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사육제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오리가 많아 2019년보다 13.8% 증가한 922만 4천 마리로 전망되며, 2020년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늘 것으로 추정된다.
 - 2019년 12월 말 기준 전체 산란 종오리는 전년보다 13.9% 많았으며, 경제주령 범위 내의 산란오리(25~78주령)는 42.4% 많았다(한국오리협회).
- 육용오리 병아리 생산잠재력 추정 결과, 2020년 1~6월 잠재력 지수는 2019년 동기간보다 25.4%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20】 육용오리 병아리 생산잠재력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0년	108.5	116.3	123.3	132.0	142.7	146.8
2019년	100.0	97.4	96.0	100.0	109.0	114.9
증감률(%)	8.5	18.9	27.3	32.0	33.7	31.9

주: 잠재력 지수는 산란 종오리 사육 마릿수와 주령별 산란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월별 육용오리 병아리 입식 마릿수를 지수로 변환한 것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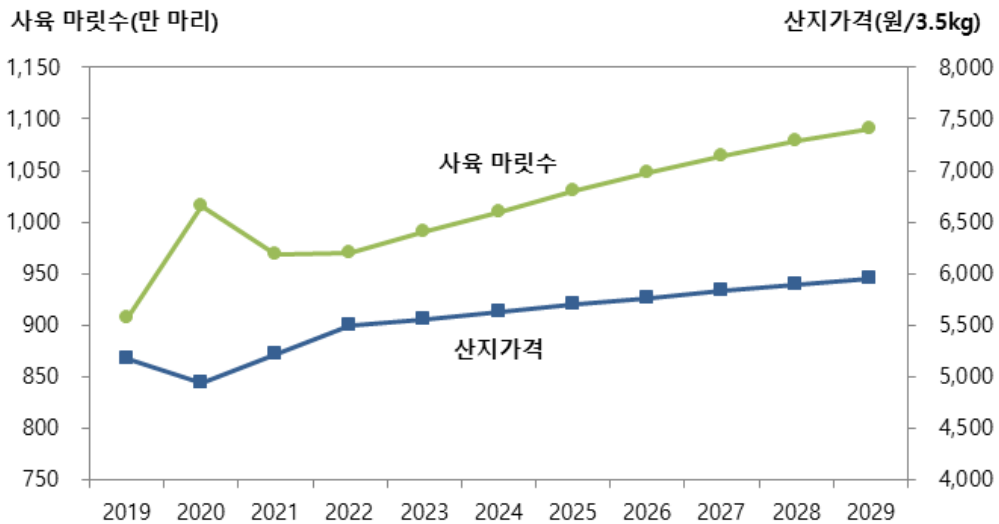
- 2020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오리 사육 마릿수가 늘어 2019년보다 9.9% 증가한 12만 8,446톤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0년 종오리 입식은 오리고기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감소하여 2021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 오리고기 생산량은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 12만 9,085톤, 2029년에는 13만 9,200톤으로 전망된다.
- 2020년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9년보다 4.6% 하락한 4,939원(생체 3.5kg)으로 전망되며, 이후에도 오리고기 소비가 범국민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오리 산지가격은 2024년에는 5,629원, 2029년에는 5,952원으로 전망된다.

[표 21-21] 오리고기 수급 전망

구 분	단위	2019	전망		
			2020	2024	2029
사육 마릿수	만 마리	907	1,016	1,010	1,091
생산	톤	116,891	128,446	129,085	139,200
수입	톤	5,840	5,176	5,965	6,134
1인당 소비가능량	kg	2.4	2.6	2.6	2.7
산지가격	원/생체3.5kg	5,177	4,939	5,629	5,952

주: 수입량은 정육·지육과 열처리 제품의 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9)

[그림 21-19] 오리고기 수급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9)